



이문희 가야금 독주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2013.05.16.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에지당)

주최: (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후원: 부산문화재단

축하의 글



“가야금 산조에 대한 끼가 솟구쳐 넘치는
봄날의 눈부신 연주에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산천은 온통 녹색으로 옷을 입고 있으며, 꽃들은 때를 만난 듯 급계 단정한 좋은 달에 사랑하는 제자 이문희 선생이 제5회 가야금 독주회를 갖는다는 반가운 소식에 칭찬과 격려의 뜻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문희 선생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전수조교로 그 맥을 이어갈 훌륭한 중견 연주자로 더욱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늘아래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눈부신 연주활동과 열정적인 많은 연주를 지켜보았지만, 자기의 노력과 실력을 자주 점검하고 확인하는 태도로 공연을 때 맞추어 준비하는 것은 연주자의 좋은 태도이며, 훌륭한 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산(峯山) 강태홍 선생님과 친분이 두터우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문장원 선생님(부산 민속협회 이사장 겸 중요무형문화재 계서도 생전에 이문희 선생의 연주를 보시고는 “이 문희 선생은 천부적인 예술의 끼를 타고 난 사람이다”라고 격찬해 주셨듯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에 대한 그 열정과 끼가 솟구쳐 넘칩니다.

양초의 불꽃처럼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밝히듯 좋은 음악을 얻고자 시간, 노력, 모든 영혼을 받치다보면 때가 되면 선생보다 더 훌륭한 가야금 연주자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누구보다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뒷배려지가 있음으로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푸르름과 활력의 계절과 더불어 이문희 선생 가야금 독주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연주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신 명 숙

프로그램

해설 - 현경채 (음악평론가, 인문학 박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위한 협주곡

- 영상 -

이 곡은 1993년 효산(曉山)강태홍 탄생 100주년 기념제에 위촉곡으로 부산대 황의중 교수가 편곡한 곡이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이신 신명숙 명인에 의해 초연된 곡이다. 그 뒤를 이어 제자 이문희 선생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난계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 곡들의 영상물이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가야금 - 이문희, 정구 - 구환석

1. 다스름
2. 진양조
3. 중모리
4. 중중모리
5. 자진모리
6. 휘모리
7. 세산조시·중모리

곡목해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담백하면서도 남자답고 곳곳한 느낌을 주며, 강약의 대비가 뚜렷하고 농현을 매우 절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줄을 개방하지 않고 막으면서 소리를 내는 수법이 많은 점도 이 산조의 특징으로 웅장함과 신비감을 주는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단의 짜임새가 다채롭고 독특하여 장단 끝에 다음 장단을 걸고 넘어가면서 뒤를 막지 않고 열고 가는 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산조중에 산조요 기교파의 총수라고 일컬어 질 만큼 고도의 기량을 요하는 뛰어난 작품으로써 많은 연주자들의 도전곡의 대상이기도 하다.

프로필



이문희 李文姬
LEE MUN HEE

現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가야금산조 전수 조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
부산교육대학교 및 대학원 강사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이사
부산시 무형문화재 연합회 기획이사

前 중등학교 음악교사 역임

서원대학교 한국음악과, 영남대학교 국악과 강사 역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분야 부산지역 부위원장 역임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청주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가야금 전공)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졸업 (석사논문: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문화학과 박사수로

제36회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종합대상 (대통령상)수상

제2회 우륵문화제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수상

제 35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

부산시 교육감상 표창 (2004)

대진시 교육감상 표창 (1974, 1984)

부산교육대학교 우수강의 교수표창 (2010, 2012)

독주회 5회 (2001, 2005, 2006, 2011, 20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가야금 협연 (2001, 200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가야금 협연 (2009)

KBS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가야금 협연 (2011)

난계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가야금 협연 (2012)

제 1회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중견명인명무전 가야금 독주 (2010)

제 8회 효산국악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20주년) 가야금독주 (2009)

제 17회 2011 국악경연대회 수상자 초청공연 등 국내외 다수 연주

사사) 이정희, 임재심, 황병주, 최충웅, 신명숙



4세 **현경채**
음악평론가
음악인류학 박사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국악방송 FM국악당 진행자



장구 **구환석**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졸업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 이수자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이사

이문희가 연주하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현경채/음악평론가

1. 향기

"그녀에게선 향긋한 냄새가 난다" 첫향은 시트러스 추출향으로 신선함이 느껴지고 다음으로는 자스민과 로즈가 조화된 향이다. 향긋한 내음으로 기억되는 가야금연주자 이문희의 향의 진원지는 바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진향의 사넬 향수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느런히 몸단장을 하고, 화장대에서 몇 가지의 화장품으로 익숙하게 피부정돈을 한다. 간단하지만 성스럽기까지 한 절차의 완성은 코코샤넬 향수이다. 잔향이 매력적인 것은 물론 편안한 느낌까지 장시간 사용하다보니 이미 이문희만의 색깔과 향기가 되었다. 패션의 완성은 구두라고도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한다지만, 패션의 진정한 완성은 '향기'이다.

2. 에너지

이문희는 기억력이 출중했고 친화력도 탁월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표정의 찰반은 미소였다. 끝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어린 시절 '원기소'라는 영양제가 있었다. 원기소를 안다면 꽤 오래사신 분일 것이다. 문희와 내가 어렸을 때 부자집 아이들은 원기소를 먹었다. 지금도 물레 원기소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언제나 높은톤의 목소리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변으로 넓게 전달해 주지만, 이문희의 에너지는 특히 가야금 연주할 때 도드라진다. 그녀의 뜸거나 튀기는 오른손의 터치에 공력을 응집한 명료한 소리이며, 왼손 농현으로 만들어 내는 현란한 미분음들은 떨고 흘러내리고 끌어 올리는 다양한 기법의 조화로 만들어진다.

3. 농현

농현은 단적으로 산조 선율의 구성요소이며 명백한 이미지이다. 농현은 산조의 필연적인 놀이이다. 농현은 높은 차원의 연주기교를 선호함과 동시에 감추어진 음을 불러일으키는 실천적인 음악성을 지향한다. 농현은 하나의 줄에서 여러 가지 소리의 명암을 구사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음색의 유희적인 요소를 표현한다. 이문희가 연주하는 강태홍류 산조는 강한 에너지로 줄을 주물러서 음계를 만들어 낸다. 이문희는 특히 농현을 통한 음계 요리를 아주 색 짙게 만들어 감정을 표현하는 열정의 연주자이다.



4. 경쟁력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했던 박지성의 말이 기억난다. 이문희는 부산외국어대 학교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거주지를 옮겨 신명숙 명인을 만나 새로운 가야금산조를 배우게 되었고, 20여 년간 오롯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매력에 푹 빠져 열정과 신명을 다 바쳐 연주하고, 보급하여 전수조교로서 큰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

맨 처음 부산시립국악관현악의 반주에 맞추어 강태홍류 산조를 협연했을 때, '강태홍류가 어렵고 맛내기가 힘든 산조인데 너무 잘한다. 오랜만에 강태홍의 소릴 들었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강태홍류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지금은 전국을 돌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과 협연을 통해서 강태홍류 산조의 맛은 알리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이어 서울의 KBS국악관현악단과의 공연은 물론, 난계송년음악회협연도 찬사를 받았고, 오는 6월에도 연정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강태홍류 산조 협연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프로연주가의 모습을 겸비한 귀감으로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

이문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행복하게' 한다.

꿈을 향해 열심히 재미있게 연습하여 경쟁력을 키운 가야금 연주자는 그 즐거움 앞뒤에 재미와 기쁨, 그리고 결승점엔 감동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 그래서 그랬나(?) 2011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있었던 이문희의 '구전심수' 음악회가 끝나고 학생에 둘러 쌓인 그녀는 비로 성공한 스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엔 언제나 진정성을 경험한 학생들이 열광한다. 재미의 부리는 호기심이지만 감동의 출기는 인내심이라는 말이 있다.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건 물론 사랑이라는 열매일 것이다.

좋은 음악은 문화를 싣고 온다. 이문희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오랜 시간 어인들의 사랑을 받은 사별 향수처럼, 오래도록 살아남은 것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할 것이다.



▶ **버스**
33번, 44번, 63번, 83-1번, 179번
연지상거리 국립부산국악원 정류장 하차

▶ **지하철**
서면, 부암, 부전동, 양정역에서 하차 약 20분 소요
1호선 서면역 7번 출구→롯데호텔백화점 버스정류장 33번 버스
부전역 2번 출구→부전시장 버스정류장 33번 버스
양정역 5번 출구→백조아파트 버스정류장 63번, 179번 버스
2호선 부암역 7번 출구→당감입구 버스정류장 33번 버스
서면역 13번 출구→부전시장입구 버스정류장 63번 버스
3호선 구포역 1번 출구→구포지하철 버스정류장 33번 버스

▶ **택시**
도시철도역서면, 부전, 부암, 양정에서 약 10분 소요

<http://busan.gugak.go.kr>
614-8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악로 2(연지동)